

책을 사랑하는 나만의 방식

책을 살 때, 서가에 꽂을 때, 읽을 때의 버릇들

정한용

시인 · 문학평론가

책에 관한 한 나는 약간의 집착증을 갖고 있다. 버릇이라고 하기엔 조금 지나친 것이어서, 나의 이러한 태도와 성향을 처음 알게 된 친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몇 번 나에게 당하고 나서 익숙해진 친구들에겐 이제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비교적 책을 많이 사는 편이다. 나처럼 일정한 월급에 매달려 사는 사람의 처지로 보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도서수집가도 아니고 애장가도 아니므로, 내가 주로 사는 책은 고가의 희귀본이나 영인본 또는 전집류 같은 것이 아니다. 그저 나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문학, 과학, 철학 분야의 책들, 우리가 흔히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책들이다.

내가 사지 않는 책

나의 버릇이 뭐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책’이라는 ‘글자가 찍힌 종이몽치’에 대하여 말해보자. 우선 문학서적, 예컨대 소설이나 시집의 경우, 양장본으로 된 책은 사지 않는다. 형편없는 내용물을 화려한 겉포장으로 위장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딱딱한 표지로 된 책은 일단 젖혀놓고 본다. 값도 비싸거니와 쓸데없는 종이낭비 · 인력낭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항의하고자 하는 나의 표시이다. 그리고 보통의 책 중에서도 표지 디자인이 요란한 것은 사지 않는다. 하드커버의 책을 기피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이다.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지나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고로 책이란 귀중한 진리를 담은 신성한 물건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나의 마음 속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일단 책이 선택되면 제일 먼저 내가 살피는 것은 책의 앞이나 뒤에 붙어 있는 판권란이다. 그리고 그 책이 몇 번째 판인가, 몇 번 재인쇄했는가를 본다. 가능하면 나는 초판을 사려고 서점을 몇 군데 거치기도 한다. 초판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한 편이라 나는 동네 어귀에 기울어질 듯 서 있는 조그맣고 오래된

책방에 자주 들른다. 책방에 뽀얗게 먼지 앉은 선반을 훑어나가다 보면, 의외로 여러 해 전에 나온, 오랫동안 찾아해매던 책의 초판본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때의 기쁨은, 나처럼 헤매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모를 것이다. 요즘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세상에, 나처럼 헌책방이 거의

‘서재’라는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다. 종이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가득한 곳, 그러면서 정돈되지 않은 책과 전기스탠드와 원고지가 유일한 장식품인 곳, 들어가 앉으면 안정감을 주는 곳이 서재이다.

사라져 오래된 책을 구하기 어렵게 된 것을 서러워하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빛이 바래어 누렇게 된 책만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신간도서 정보에 관한 한,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누가 책을 썼는지,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구상하고 있는지, 누가 가장 마음에 들게 책을 쓸 것인지, 대충은 알고 있다. 이것은 자랑거리도 못되는 것이지만, 나의 관심과 정보가 뒤지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기도 하다. 신간이 일단 발간되어 책으로 나오면, 나는 구입할 책의 목록표에 기록을 한 다음, 서점으로 달려간다. 내가 사는 도시에는 비교적 큰 서점이라 해도 신간이 늦게 들어오는 편이다. 그래서 전화로 주문을 하거나, 공금증을 참지 못할 경우에는 전철을 타고 서울로 달려간다.

‘헌책방’ 같은 공부방

이제 나의 서재로 이야기를 옮겨보자. ‘서재’라는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다. 책으로 가득한, 종이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냄새가 가득한 곳, 그러면서 웬지 정돈되지 않고 여기저기 펼쳐진 책이 널려 있는 곳,

독서용 전기 스탠드와 원고지가 유일한 장식품인 곳, 조금은 허전하면서도 들어가보면 안정감을 느끼는 곳, 그런 곳이 서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서재는 그런 기쁨이 없어 그저 ‘공부방’이라 부르며 죽할 조그맣고 좁은 곳인데, 책은 적잖게 쌓아놓고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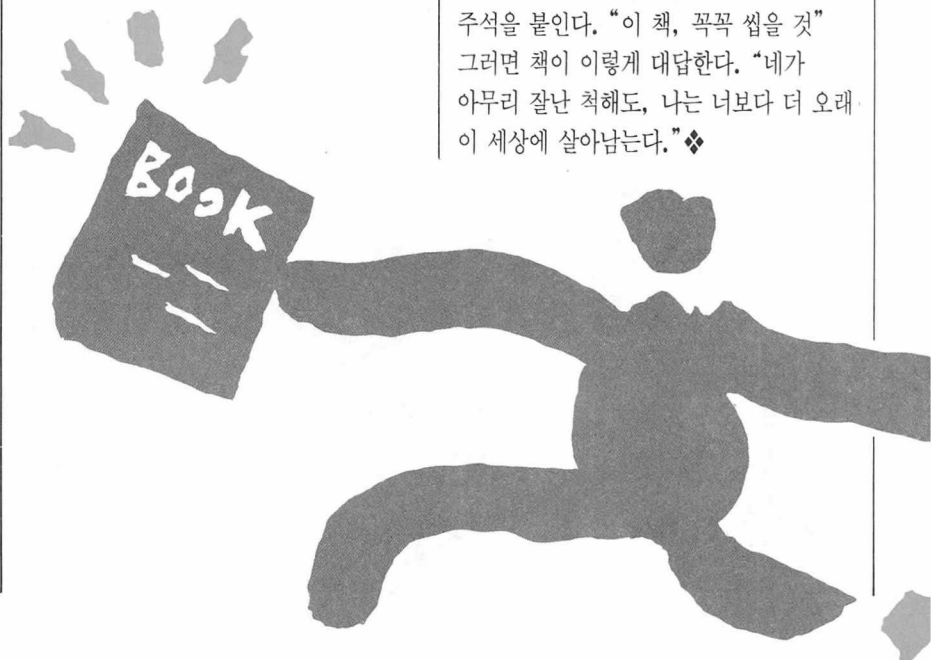
친구들이 가끔 와서 내 공부방을 들여다볼 때면 여지없이 “야, 너 나중에 헌책방 차릴 거냐?” 하고 한마디씩 하곤 한다. 그런 친구들 중의 몇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호심을 품는 자들이 가끔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법이 없다. 꼭 돌려주겠다고 골백번 언약하고 각서에 차용증까지 쓴다 해도 나는 빌려주지 않는다. 차라리 책값을 빌려줄 테니 서점에 가서 사보라고 한다.

한번은 아주 친한 친구가 집에 왔다가 내 책에 눈독을 들였던 일이 있다. 그는 내게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다가, 내가 눈도 꿈쩍 없으니까 드디어 절교선언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증오심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드디어 마음이 흔들렸고, 책 두권을 빌려주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빌려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차용증 대신에 손톱을 깎아놓으라고 했다. 이쯤이면 나의 모진 마음을 이해했을 텐데, ‘혹시’가 ‘역시’로 바뀐다고, 그는 빌려간 책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 10년전의 일이니, 그

친구는 10년 동안 내게 부채를 지고 사는 셈이다. 나는 아직도 그 책을 기억한다. 박이문의 《시와 과학》과 올란드 야코비의 《갈 융의 심리학》 번역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구여, 이 글을 보거든 돌려주기 바란다.

내 공부방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이 방에 일단 들어온 책은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무슨 뜻인지 눈치를 챌 것이다. 서점에서 사온 책이야 당연하니 나의 것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책도 일단 내 서재로 들어오면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책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책이 펼쳐는 자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책들이 사실은 꽤 여러 권 있다. 내게 책을 빌려주셨던 다정한 친구들, 이 공개지면을 통하여 고마움을 알린다. 나는 책을 사랑하고, 나는 그대들로부터 ‘사랑’을 영구임대할 것이다.

책읽기에 대해 한마디만 더하고 글을 끝맺어야 하겠다. 이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 좋은 책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나쁜 책은 우리에게 가서는 안될 길을 일러준다. 언젠가 나는 책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빨아먹는다’고 쓴 적이 있다. 세상에는 찬찬히 빨아먹어야 할 책, 꼭꼭 씹어먹어야 할 책, 맛만 보고 버려야 할 책 등이 있다. 그런 책에 연필을 들고 밑줄을 그으며, 나는 여백에 이렇게 주석을 붙인다. “이 책, 꼭꼭 씹을 것” 그러면 책이 이렇게 대답한다.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이 세상에 살아남는다.” ❖



불안한 실존의 죽음읽기

한권의 만화책에서 배운 죽음의 해석학

이주현

미술평론가

어릴 적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도둑도 도깨비도 아닌 죽음이었다. 7살 때였다. 동네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읽고 있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만화의 장면은, 주인공이 무슨 절박한 이유로 배에서 풍랑이 이는 바다로 뛰어들며 “사람이 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 말풍선을 읽던 나는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때까지 죽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가 죽는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만화의 글귀에 따르면 나를 포함해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다 죽고 만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만화를 볼 기력이 없었다. 엄청난 공포에 두려워 떨었다. 처음 겪는 종류의 공포였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만화를 내팽개치고는 집으로 냅다 달음박질했다.

세상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

비록 만화책이었지만, 나는 나의 실존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책을 통해 알았다. 이후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삶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왕성한 독서열로 채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보시던 《신동아》같은 책을 뜻도 모르면서 읽곤 한 데는, ‘죽음을 가르쳐준’ 인쇄매체의 힘에 대한 잠재적 신뢰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돌아보아도 내가 가장 열심히 책을 읽었던 때는 바로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안 읽은 날이 거의 없었으니까.

다시 죽음 이야기로 돌아가자. 7살 때의 ‘첫 충격’ 이후로 나는 간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그럴 땐 입맛, 밥맛 다 없고 방 한구석에 처박혀서 진땀을 다 흘렸다. 그러면 어머니는 조그만 냄비 웬 궁상이냐고 하시고, 아버지는 아빠 엄마보다 한참 오래 살 텐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다. 그때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에 변화가 온 것은 중학생이 됐을 때였다.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기독교적 구원론에 깊이 빠져들게 됐다.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은 진정

한줄기 빛이었다. 한가지에 깊숙이 집착하는 스타일인 나는 곧 누구 못지 않는 신앙인이 됐다. 만사가 해결된 듯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었다. 삼만년을 살아도, 십만년을 살아도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날들이 끝없이 남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영원히 결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결말 없는 날들을 문득문득 망연히 생각하고 있을 천국의 나를 생각하니 그것은 하나의 공포였다.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되면 감수성도 무뎠지는 것일까. 나이가 차자 죽음의 공포가 주는 통증도 많이 누그러졌고, 어느덧 기독교적 구원관에서도 슬그머니 빠져나오게 됐다. 그렇지만 죽음과 관련해 또 다른 궁금증이 간혹 나를 불러세우곤 했다. 왜 사람들은 다가올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존재 자체가 없었던 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었다.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나 이 세상에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역겹의 세월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한다. 과거에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니 앞으로 그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옛 나의 부재가 미래의 나의 부재를 규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태고적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업보 같은 것으로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똑같이 두려워해야 할 당위가 아닌가. 하지만 아무도 자기 생일 이전의 자신의 부재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로부터 나는 거칠게나마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 못함’ 또는 ‘알 수 없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인간이 출생 이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 시점 이후 삶을 누리는 데서 오는 충족감 탓도 있겠지만, 그 자신과 가족, 인간과 자연 등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때까지

축적된 지식을 얻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만큼 실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지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한 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에 대응할 수 있다. 내가 ‘진실한 신앙인이었을 때’ 영생에 대해 공포를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히 미지의 날들을 대해야 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즉 하나님 덕에 나에게 완전한 생명이 주어졌을지는 몰라도 내가 완전한 신이 아닌 이상 나 자신은 그 생명의 날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다. 내가 만약 과거와 미래의 인류의 전 역사와 존재와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다면 죽음을 아무 두려움 없이 맞게 될까? 잘은 몰라도 그뻔 그럴 것 같다. 다 안다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체험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 더 이상 존재할 이유조차 없을지 모른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신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책읽기는 결국 죽음읽기다.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록, 보존,
교통해온 인간의 지식은 곧
죽음에 대한 해석학이다.
죽음으로 인한 존재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살아 있음과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애정, 정직성과 관련이 깊다.

불가에서 깨달은 이들이 모든 것에 초연한 것도 이런 앞, 또는 앞의 힘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존재 특성상 영원히 앎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현존과 부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는 그 갈등을 매워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단순히 현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 불안한 존재 위상을 다잡기 위해 끝없이 앎을 궁구하고 지식을 축적한다. 한마디로 지적 욕구는 본능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을지 모르나 본능의 명령에 따라 신을 지향한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 신으로 죽을 운명인 것이다.

죽음은 지식의 ‘추’

너무너무 애돌아왔다. 내가 무얼 말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말해야겠다. 책 읽기는 종교적으로 ‘죽음 읽기’란 것이다. 최소한 나에게서는 그렇다. 인간은 스스로 확장해온 지식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록, 보존, 교통해왔다. 그 기록은 죽음에 대한 해석학이다. 그것이 어떤 분야, 어떤 시각에 속해 있는 것이든 그것은 결국 죽음에 대해 말한다. 물론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은 순도와 질, 관점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공통된다.

7살 때 내가 만화책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커서였을까. 나의 책읽기는 옛적부터 그렇게 죽음을 의식해왔다. 그래서 나는 어떤 대단한 이념과 사상을 말하는 책이라도 바로 인간의 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한 존재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책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것은 그같은 고려가 살아 있음과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애정, 정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죽음은 지식의 추다.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치는 추다. 그것을 나는 평범한 한 만화책에서 배웠다. 이는 왜 내가 나중에 나의 관에 그 만화책을 유일한 부장품으로 가져가고 싶은가에 대한 이유이다. 그 제목적차 모르는 만화책을 내 사는 날 동안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나는 그때까지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책 한 권을 대용품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 말은, 어차피 그 만화책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터이므로, 좋은 책을 찾아 열심히 독서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